
그래픽디자인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현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ostmodern Phenomenon in Graphic Design

●
류 성 현

기전여자전문대학 산업디자인과

●

Sung-Hyun Ryoo

Ki-Jeon Women's Junior College

ABSTRACT

In the 1970s, the term Post-Modernism came into use to label work of graphic design who broke up the Swiss style that had defined clarity and order. The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graphic design include pluralistic and eclectic style.

Those innovation of graphic design concerned with our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economic changes.

Deconstruction is one of the theory of Post-structuralism. Deconstruction refers to the breaking down of metaphysics, rationalism, totality and so on. Deconstructive graphic design destroys traditional harmony even more than Marinetti's claim.

Totality in graphic design seems to be ignored. Post-Modernism in architecture appears as historical revivalism and pluralism. The eclectic revivals and eccentric reinventions in graphic design are far too pluralistic and diverse to fit such as a simplistic system of style. Another innovation in graphic design occurs by electronic revolution. The impact of computer upon graphic design is becoming even more pronounced.

Most importantly, Post-Modernism can consider the rediscovered freedom in graphic design. Graphic design is undergoing profound changes. But the essence of graphic design as communication tools will remain unchanged.

I. 서 론

1. 연구목적

1950년대 후반에 문학에서 시작된 포스트모던에 관한 논의는 현사회의 문화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용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 경제적으로는 후기산업사회의 특징인 소비지향적, 개인주의적, 회의주의적,

비인간화, 후기자본주의 특성을 지닌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정착되어 제3세계의 독립 및 정치적 대두, 민족주의의 표출,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포스트구조주의(Post-Structuralism)에 영향을 받아 일원론적 세계관, 형이상학등에 반발한 것이며, 예술사적으로는 모더니즘 후기에 발생한 아방가르드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픽디자인

1) 이일형, "미국과 유럽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권택영(편),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서울 : 문예출판사, 1991), P222.

에서는 국제주의양식 혹은 스위스양식으로 알려진 간결하고 명료한 디자인에 대한 도전, 역사적 절충주의에 의한 디자인등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부르고 있다. 그래픽디자인에 나타나는 이와같은 현상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으로 간주되는 ‘다원주의’, ‘해체’, ‘절충주의’, ‘혼성모방’ 등과 같은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들이 그래픽 디자인에는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는가를 고찰해보고자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의는 문화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논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논의 대상에 따라서 각기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철학에 있어서 포스트구조주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동의어라 해도 무방하다.”²⁾ 포스트구조주의 이론이 철학과 언어와 같은 사회과학에 관련된 것이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이성적 주체에 대한 부정이나 체계화 총체화에 대한 도전은 문화 전반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픽디자인에도 이들 이론이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건축은 문학에서 기초가 잡힌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념적인 내용을 받아들여 체계화”³⁾ 시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철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과 젠크스를 중심으로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장 1절에서는 포스트구조주의에 대한 논의를, 2절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 건축의 특성을, 3절에서는 그밖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들에 관하여 3장에서는 그래픽디자인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논의하였다.

II.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과 이론가들

1)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는 후기구조주의 혹은 탈구조주의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포스트구조주의는 해체(Deconstruction)라고 불리우는 데리다의 철학이론과 푸코의 사회이론, 리오타르의 이론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을 논의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포스트구조주의이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구조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 행위의 산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언어와 문학 작품을 비롯한 모든 지식과 문화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나 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⁴⁾

구조주의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은 스위스의 언어학자인 소쉬르(F.de Saussure)로 알려져 있다. 소쉬르는 언어의 추상적 체계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말과 사물사이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언어를 실제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추상적 체계를 가리키는 랑그(langue)와 개인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언어를 가리키는 파롤(parole)로 분류하였다.⁵⁾

소쉬르는 랑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는 언어적 기호를 기표(signifier)와 기의(siggnied)로 분류하고 있다. 기표는 낱말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리나 문자로 표현되는 기호를 의미하며, 기의는 낱말의 개념을 의미한다. 소쉬르는 실제 대상과 그 대상에게 주어진 말이 본질적이거나 필연적인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약정과 공통적인 사용에 의해”⁶⁾ 그 대상을 상징하는 것이 언어이며, 이 언어는 공동사회의 약속이나 습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기표와 기의사이에는 아무런 논리적 관계나

2) 이광래, “철학적 언설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권영택(편),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서울 : 문예출판사, 1991) P54.

3) 박상선, “포스트모더니즘의 구조와 리오타르의 철학”, 박상선(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과 철학(서울 : 열음사, 1992) P25.

4) 김옥동,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 현암사, 1991) P30.

5) 김옥동, 앞의 책, P31.

6) 마단 사립외,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임현구(편) (서울 : 인간사랑, 1992) P12.

필연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임의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⁷⁾

이와 같이 구조주의는 언어의 구조나 체계를 분석하고 정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위와 같은 점에 불신과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인간 행위나 그 행위에서 비롯된 모든 현상에서 추상적 체계나 구조가 존재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받아 들이려고 하지 않는다.”⁸⁾

이와 같이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에 내재해 있던 불신과 회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상호간에 차이점은 물론 공통점도 존재하고있다. 포스트구조주의와 구조주의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요약해보기로 한다.⁹⁾

- 1) 포스트구조주의와 구조주의는 역사성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이들은 역사에 일반적인 법칙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2) 포스트구조주의와 구조주의는 둘 다 언어를 인간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구조주의에서는 기의와 기표간에 불안정한 균형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포스트구조주의에서는 기의는 강등되고 기표가 지배하게된다. 포스트구조주의는 기호의 불변적 통일성을 주장하는 소쉬르의 입장을 공격한다.
- 3) 포스트구조주의와 구조주의는 인간행위의 의미에 있어서 비판적이다. 구조주의자들은 개별적인 텍스트에는 관심이 없고,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요시한다. 포스트구조주의에서 의미에 대한 회의는 더 극단적인것이 되며, 데리다의 해체주의에서는 텍스트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지않고 항상 개방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 4) 포스트구조주의자들은 이성적 주체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자아의 개념을 파괴하고 해체하려고 한다. “이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이성적주체, 의식적 자아의 개념이

아닌 의식으로부터의 이탈이고 이성으로부터의 탈중심화이다.”¹⁰⁾

- 5)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와는 다르게 추상적 체계성이나 총체성을 거부한다. 특히 데리다는 절대적인 원리나 근원이되는 중심적인 체계를 해체하고자 시도한다. 즉 파롤/랑그, 시니피양/시니피에, 내용/형식, 객체/주체, 육체/영혼 등과 같은 이항대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데리다는 그의 이론을 통해 이와같은 이항대립을 붕괴시키고자 한다.

포스트구조주의와 구조주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열거하면서 개괄적으로 포스트구조주의 특징을 파악해 보았다. 위에 열거한 것들이 포스트구조주의를 대표하는 공통적인 특징들로 간주될 수는 있지만 포스트구조주의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 포스트구조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건축과 디자인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리다의 해체와 푸코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한다.

2) 데리다(Jacques Derrida)와 푸코(Michel Foucault)

데리다는 해체(Deconstruction)의 주도적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데리다는 1967년에 ‘문자학에 관하여(Of Grammatology)’, ‘말하기와 현상(Speech and Phenomena)’, 그리고 ‘글쓰기와 차연(Writing and Difference)’이라는 책을 출판함으로써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을 시작했다. 데리다가 가장 중요시 했던 철학적 과제는 “니이체와 마찬가지로 플라톤 이래 서구형이상학을 지배해온 근원주의와 이성중심주의에 대한 불신”¹¹⁾이라고 할 수 있다.

데리다는 글(writing)에 대하여 말(speech)에 우위를 두는 것을 음성중심주의(Phonocentrism)라고 부른다.

7) 김옥동, 앞의 책, P32.

8) 김옥동, 앞의 책, P33-34.

9) 마단 사립의, 앞의 책, P9-14과 김옥동, 앞의 책 P30-P55 참고

10) 이광래, “철학적 언설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권영택(편),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서울 : 문예출판사, 1991) P55.

11) 이광래, 앞의 책, P60.

말이 글보다 언제나 더 현존(presence)에 더 가깝게 여겨지기 때문에 글에 대하여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데리다는 말과 글사이에 존재하는 대립을 해체하려고 시도한다. 즉 “글을 말의 이차적인 형식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말 역시 글의 이차적인 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¹²⁾ 데리다는 절대적인 기초나 제일원인등에 의존하는 사고체계를 ‘형이상학’이라고한다. 절대적인 근원이나 제일의 원리에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배척하고 제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이항대립이 전제되어질 때 절대적인 원리나 기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데리다는 이항대립을 버리도록 제안한다. 데리다는 우리가 이런 이분법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참다운 사고를 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데리다는 이항대립구조를 버리도록 제안하는데 이와 같은 데리다의 비평적 작업을 ‘해체’라고 부른다.

푸코의 포스트구조주의의 특징은 거대이론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다. 푸코는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피하면서 체계성(systemacity)을 비판한다.”¹³⁾ 특히 푸코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념에 반대한다. 그는 계급의 존재를 믿지 않았으며, 계급의식이나 계급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푸코는 마르크스주의에 비판적이며, 그의 권력개념에는 “마르크스의 지배계급과 피지배 계급간의 갈등구조가 무의미해진다.”¹⁴⁾ 푸코는 거대이론보다는 계보학, 고고학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해석하거나 권력과 지식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와같은 방법을 통하여 푸코는 “파편화된, 국지적인, 그리고 특수한 지식을 재발견”¹⁵⁾ 하는 데 노력했다. 푸코의 계보학적 방법에 의한 새로운 접근방법은 지금까지의 고정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 유동적이고 상대적이며 다원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분석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

3) 건축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

루이 실리반의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Form follows function)’는 기능주의 이론 아래 기계적이고 단순한 보편성을 추구하던 근대건축을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이라고 부른다. 단순하고 기능에 집착한 국제주의 건축양식은 건축의 “심리적, 정신적기능이 배제된 물리적 기능만을 충족시키게 되었고, 도시구성에 있어서도 그 지역의 전통성, 풍토성, 기후, 지역성등 문화적인 맥락(context)을 잃어 버리게 하였다.”¹⁷⁾

국제주의 건축양식이 쇠퇴하면서 건축에는 두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찰스 젠크스(Charles Jencks)는 이를 레이트-모던(Late-Modern)과 포스트모던(Post-Modern)으로 구분하고 있다. 젠크스는 레이트-모던은 기술, 동선, 효율성 등과 같은 근대적 가치에 최우선권을 두고 있는 반면에 포스트-모던은 도시의 문맥과 사용자들의 가치, 그리고 장식과 같은 건축 표현수단을 강조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레이트-모던이 모더니즘을 과장하여 활성화시키고 있는 반면에 포스트-모던은 다원적이어서 모더니즘을 변곡하여 모던 이후의 과도기적 양식을 창출해 낸다고 설명한다. 젠크스는 로버트 벤츄리(Robert Venturi)를 역사적 전통의 상징을 건축에 도입한 첫번째 인물로 간주한다. 벤츄리는 그의 첫번째 저서(1966)인 ‘건축에서의 복잡성과 대립(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에서 “단순성 보다는 복잡성과 대립성, 직설적인것 보다는 모호함과 긴장된 것, 둘 중 하나보다는 둘 모두, 단일 기능보다는 두가지기능을 지닌 요소, 분명하게 통일된 것보다는 흐트러져 생동감있는 것”¹⁸⁾

12) 마단 사립외, 앞의 책, P25.

13) 김육동, 앞의 책, P53.

14) 마단 사립외, 앞의 책, P59.

15) 이광래, 앞의 책, P59.

16) 앞의 책, P59.

17) 이일형, “미국과 유럽의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권택영(번),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P223.

18) 찰스 젠크스, “현대 포스트 모던 건축의 언어”, 송종석김수(서술 : 태림문화사, 1987) P7.

19) 젠크스, 앞의 책, P89.

등과 같은 모더니즘에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게 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벤추리는 역사적 절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켄크스의 포스트모던 건축을 포스트 모던 고전주의(Post-Modern Classicism)라고 결론 짓고 있다. 켄크스는 “건축가들은 대중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은유, 장식, 다채색, 관습과 같은 레퍼토리를 다시 사용하고 있다.”²⁰⁾ 고 주장한다. 이는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 대중에게도 호응받는 다원화되고 복수화(이중코드)된 건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그 밖의 포스트모더니즘 이론들

지금까지 열거한 것 이외에도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하버마스(Habermas)는 모더니즘은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과제(Modernity-An Incomplete project)’²¹⁾ 로 계속 추구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던의 조건(The Postmodern Condition)’의 저자인 리오타르(Lyotard)는 하버마스의 입장을 공격하고 있다. 리오타르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에서 한 작품이 포스트모던한 경우에만 모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체성(totality)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증거하고, 차이점(difference)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지키자고 주장하며, 포스트모던의 특징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전체성에 대한 도전과 차이점을 주장하는 다원주의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임슨(Fredric Jameson)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대학과 박물관, 화랑 등과 같은 조직에 의해 지배되어 왔던 본격 모더니즘(high modernism)에 대한 반발이며, 고급문화(high culture)와 대중문화(popular culture) 사이에 경계나 분리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임슨은 시대적 구분의 개념으로서 후기산업사회, 소비사회, 대중

매체와 구경거리의 사회, 그리고 다국적 자본주의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와 새로운 경제 질서 이 출현을 포스트모더니즘과 연관짓고 있다. 즉 포스트모더니즘을 새로운 시대의 문화논리로 규정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혼성모방(pastiche)과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으로 규정한다.²¹⁾

Ⅲ. 그래픽디자인에 나타난 포스트모던 현상들

지금까지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론들 가운데 몇가지를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와 문화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한된 이 논의들을 통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을 무엇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논의되어진 포스트모던 현상들을 중심으로, 이 현상들이 그래픽디자인에는 어떻게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는가에 관하여 실례를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한다.

1) 그래픽디자인에 나타난 해체

그래픽디자인에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은 1977년에 시카고의 라이더화랑(Ryder-Gallery)에서 열린 “포스트모던 타이포그래피-최근 미국의 발전(Post-modern Typography-Recent American Development)”이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난 이후라고 생각된다. 건축에서 벤추리가 1966년에 발간된 ‘건축에 있어서의 복합성과 대립성’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하여 모더니즘에 대한 반격을 시작했을 무렵 그래픽디자인에도 스위스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험들이 행하여 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객관적, 보편적, 그리고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그래픽디자인의 질서(order)와 명료성(clarity)을 추

20) 켄크스, 앞의 책, P149.

21) 이글은 하버마스가 1980년 9월에 아도르노상을 수상하면서 행한 연설을 1981년 3월에 New York University와 New German Critique 22호에 ‘Modernity versus Postmodernity’라는 제목으로 발행한 것이다.

22)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A Report on Knowledge”, translation by Geoff Bennington and Massumi, (USA: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1984) P 79-82.

23) Fredric Jameson, “Postmodernism and consumer Society”, edited by Hal Foster, (USA: Bay Press, Washington, 1983) P 111-112.

24) Jameson, 앞의 책, P 112-113.

구하던 스위스디자인은 직관적이고 유희적인 실험들에 의해 도전받게 된다. 와인가르트(Wolfgang Weingart)는 기존의 활자체계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험하면서 정형화된 스위스디자인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화면에서 그리드가 파괴되고, 종합적인 구도(lay out)는 해체되어진다. 그림1과 그림2의 와인가르트의 실험들은 전통적인 자간과 행간의 개념들을 파괴하고 있다. 와인가르트의 이러한 실험들은 1900년대 초기에 행하여 졌던 미래파(Futurism), 엘 리지스키(El Lissitzky), 그리고 피에트 쾨르와르트(Piet Zwart)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3과 같은 미래파의 문자에 대한 자유로운 실험정신과 그림4와 5에서 볼 수 있는 문자의 자유로운 사용과 유희적인 요소들은 와인가르트의 작업속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와인가르트의 영향은 그에게서 교육받은 에이프릴 그레이먼(April Greiman)과 댄 후리드맨(Dan Friedman)등에 의해서 미국으로 옮겨지게 되며,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다. 그림6은 후리드맨의 공간에 대한 탐구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윗부분은 기능적이고 단순하며 정적이고 질서있는 디자인을, 아랫부분은 자유롭고 복잡하며 동적이고 무질서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를 모던한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후자를 포스트모던한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모더니즘의 시각적인 추상적인 개념(visual abstraction)은 유지되고, 명료성과 기능성의 전통적인 목표는 파괴”²⁵⁾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그리드에 의한 짜임새있는 구도는 파괴되고, 전체적인 구조는 직관과 유희에 의해서 해체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경향은 그림7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파편적인 형태와 불규칙한 공간들은 우리의 시선이 한곳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한다. 위의 몇가지 예들을 통하여 그동안 그래픽디자인이 추구해 오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보편성에 기인한 그리드의 체계와 시지각에의해 표현되던 디자인요소들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것을 보았

다. 이와같은 현상은 앞에서 언급한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총체성이나 체계성에대한 해체, 이성적 주제와 의식적 자아로부터 벗어나려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이론은 그래픽디자인의 구조를 해체하려는 접근방법과 유사하다. 그래픽디자인 분야는 사회나 문화를 떠나서 존재하기는 어렵다. 사회 구성원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다. 다시말하면 새로운 문화나 사회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그래픽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픽디자이너들이 포스트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하여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포스트모던한 사회에 살고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디자인이 발전되어 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그래픽디자인의 역사적 절충주의

건축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역사적인 인유를 채택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양식을 통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벤츨리는 “대중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환경과 19세기의 절충주의를 재평가하여야 한다.”²⁶⁾ 고 주장한다.

그래픽디자인에도 이와같은 역사적 절충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1954년에 밀톤 글래저(Milton Glaser)는 뉴욕에 푸쉬 핀 스튜디오(Push Pin Studio)를 시작한다. 글래저는 “우리가 데코(Deco)나 누보(Nouveau)의 요소를 사용하는 것은 화가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지각대상으로서 풍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하나의 주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²⁷⁾ 이들은 그들의 작업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주저없이 과거의 양식을 빌어온다.

1950년대부터 그래픽디자인에는 “현대 운동의 영향으로 수십년 동안 거부되어 왔던 19세기의 장식적이고 고상한 타이포그래피”²⁸⁾ 가 실험되고 있었다.

25) Ellen Lupton, "The 1970s: Age of sign", Print Magazine, (11월/12월 1989) P 143.

26) 켈크스, 앞의 책, P 89.

27) Ellen Lupton, 앞의 책, P 161.

허브 루벨린(Herb Lubalin)은 타이포그래피의 대가로 알려져 있다. 루벨린의 타이포그래피도 때로는 빅토리아스타일과 아르누보의 특성이 나타난다. (그림 8)

필립 맥스는 그래픽디자인에 나타난 이와같은 역사주의와 절충주의를 “레트로(retro)와 버나클라 디자인”이라고 불렀다. ‘레트로’는 “단순한 과거의 부흥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산업사회이전의 시골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물건을 연상시키는 단순하고 소박한 디자인에 대한 애호경향²⁸⁾”을 말한다. ‘버나클라’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양식과 상징들을 전개하는 표현방법³⁰⁾” 혹은 “역사적인 시대와 장소의 광범위한 특성의 평범한 예술과 기술적인 표현³¹⁾”을 의미한다. ‘레트로’와 ‘버나클라’는 둘 다 과거의 평범하고 소박한 디자인에 대한 향수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그동안 너무 세련되어지고 엘리트 취향이 되어버린 디자인에 대한 반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와같은 경향은 포스터를 비롯한 포장과 책표지등에 폭 넓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9는 1930년대의 허버트 매터(Herbert Matter)의 유명한 포스터를 시계광고에 이용한 디자인이다. 그림10은 우표와 과거의 그림을 사용한 상표(trademark) 등을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 디자인은 세련된 감각보다는 친근감을 주는 디자인이라고 생각된다.

역사주의에 대한 부활은 그 동안 진부한 것, 과거의 양식으로 생각되던 디자인양식을 현대디자인에 등장시킴으로서 과거와 현재가 한 화면안에 공존하는 다원화된 디자인을 가능하게 하였다.

3) 그밖의 그래픽디자인에 나타나는 현상들

1981년에 이탈리아의 진보적인 그룹인 맴피스(Memphis)가 설립되었다.

맴피스그룹은 새로운 디자인의 목적을 “전체보다

는 부분적에 대한 자유로운 불연속성을 강조하는 것, 가능한 한 불가사의한 디자인,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갖는 새로운 언어적 ‘표현’특질을 탐색하는 것, 우리들의 생활경험속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모든 가능한 관용어를 재순환시키는 것, 자유의 기호와 창조적인 발명의 숭고함으로써 장식과 색채를 회복하는 것, 에르고노믹스의 한계를 넘어 인간과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과의 정서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³²⁾”으로 삼고 있다. 이와같이 다원화된 디자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맴피스의 디자인은 기능주의적인 디자인을 공격하고 있다. 맴피스그룹의 장식적인 칼라 패턴과 화려한 기하학적인 형태, 자유로운 유희적 표현등은 그래픽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포스트모던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컴퓨터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애플 컴퓨터사의 매킨토시 컴퓨터는 그래픽디자이너에게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비트 맵 타입(bit-mapped type)과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진 패턴들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손으로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짧은 시간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컴퓨터에 의해 만들어지는 형태들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이미지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한다.

IV. 결 론

포스트모더니즘은 하나의 양식으로 표현될 수 없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다양한 주장과 논리가 존재하는 후기산업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20세기초와는 전혀 달라진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는 새로운 미학적 개념이 요구되는 지금 디자인에 나타나는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은 당연한

28) 필립 맥스,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월간디자인사역, (서울 : 디자인사, 1985) P414.

29)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서울 : 미진사, 1991) P258.

30) Ellen Lupton, 앞의 책, P161.

31) Philip Meggs, “A History of Graphic Design”, 2nd edition, (USA: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992), 460쪽.

32) 정시화, 앞의 책, P265-266.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픽디자인에 나타나고 있는 포스트모던의 유형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해체적인 경향미, 다른 하나는 역사적 절충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간주되는 파편화, 주체의 해체, 다원주의적, 그리고 절충주의적인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포스트모던 그래픽디자인은 모던 그래픽디자인으로 대변되는 질서있고 명료한 디자인에 도전함으로써 그래픽디자인이 더욱 자유로운 방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픽디자인이 표현에 있어 다양성을 획득하게 되었지만 그래픽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픽디자인에서 다양성과 복합적인 표현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수행되지 않는다면 그래픽디자인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

그래픽디자인의 과제는 포스트모던할 때만이 모던이 될 수 있다는 리오타르의 주장처럼 언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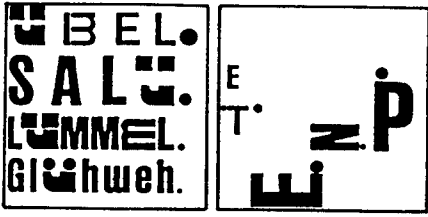
앞서 있는 시대적 감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그래픽디자인은 서구의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와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양식이 우리에게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픽디자인에서 서구의 역사적 절충주의를 모방하고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저항없이 서구의 모더니즘을 받아 들였던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그래픽디자인에 부분적으로 해체적인 그래픽디자인이 대학의 전람회등을 통하여 등장하고는 있지만 아직 실험적인 단계로 보여진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과제는 서구논리에 기초한 포스트모더니즘을 어떻게 수용하여 우리의 것으로 만드느냐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포스트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잘 파악하여, 피상적인 양식의 모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와 사회적 특성에 맞는 그래픽디자인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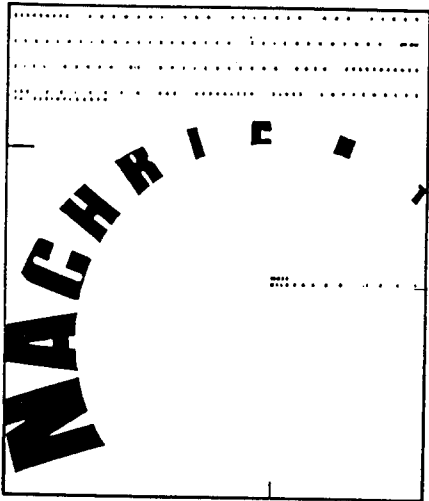
그림목록

1. Wolfgang Weingart, 타이포그래픽 실험, 1971.
2. Wolfgang Weingart, 타이포그래픽 잡지의 표지, 1971.
3. Filippo Marinetti, The Words to Freedom, 1919.
4. El Lissitzky, De Stijl의 표지와 페이지, 1922.
5. Piet Zwart, NKF의 광고, 1926.
6. Dan Friedman과 Rosalie Hanson, 타이포그래픽 교환, 1970.
7. April Greiman, 차이나 클럽을 위한 광고, 1980.
8. Herb Lubalin, Ice Capades를 위한 로고, 1967.
9. Paula Scher, 스위스 시계 포스터, 1985.
10. Joe Duffy와 Charles S. Anderson, 책 표지, 1985.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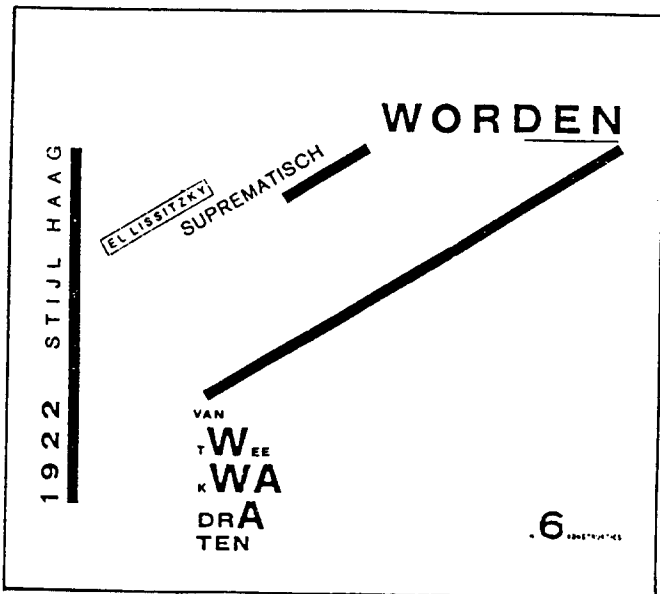
1



2



3



4

Weather:
Sunny
hot
humid

today and tomorrow,
 Fair and warm tonight.

Temperature range:
 Today 96-75
 Tuesday 94-72

Weather: Sunny, hot, humid
 today and tomorrow

Fair and warm tonight
 Temperature range

Today 96-75
 Tuesday 94-72

Weather:
Sunny

hot
humid

today and tomorrow,
 Fair and warm
 tonight
 Temperature range:
 Today 96-75
 Tuesday 94-72

Sunny

H O T hum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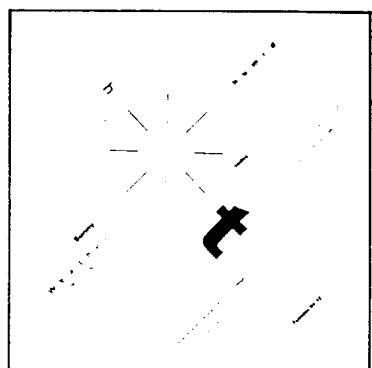
Temperature range

H

O Sunny

T Fair

Temperature 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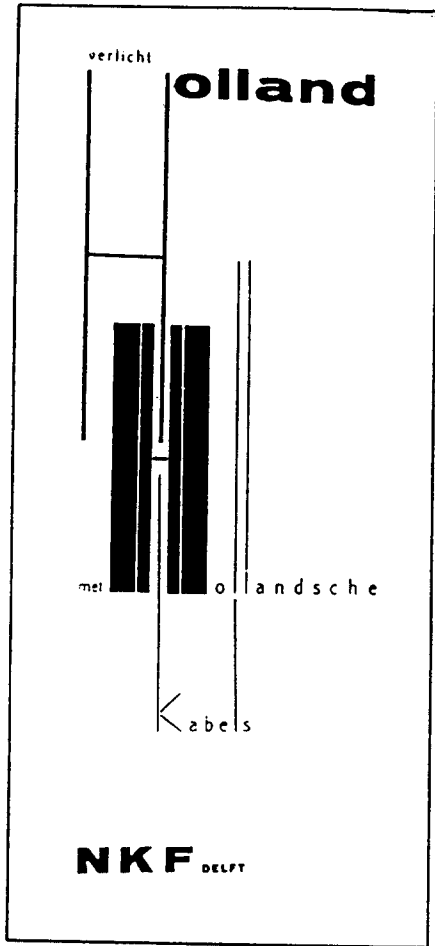
6

It's a Cabar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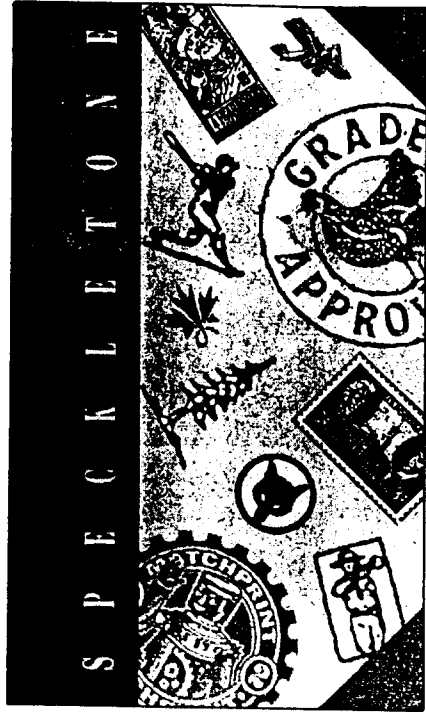
8



9



5



10



참 고 문 헌

- 1) 강내희, 정정호(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쟁점, 서울, 도서출판 터, 1991.
- 2) 강내희, 정정호(편), 포스트모더니즘론, 서울, 도서출판 터, 1990.
- 3) 권택영(편),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1991.
- 4) 김옥동(편),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0.
- 5) 김옥동(편),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1992.
- 6) 임헌구(편역),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인간사랑, 1992.
- 7) 정시화, 산업디자인 150년, 서울, 미진사, 1991.
- 8) 찰스 젠크스, 현대 포스트 모던 건축의 언어, 송종석감수, 서울, 태림문화사, 1987.
- 9) 필립 맥스,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월간디자인 편집부역, 서울, 디자인사, 1985.
- 10) Jean-Francois Lyotard, The Postmodern Condition, USA, The university of Minnesota, 1984.
- 11) Hal Foster(edit), The Anti-Aesthetic, USA, Bay Press, 1983.
- 12) Philip Meggs, A History of Graphic design, 2nd edition, USA, Van Nostrand Reinhold, 1992.
- 13) Print magazine, Nov./Dec., 1989.